

'교무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Q) 교무금이 무엇인가요?

교회법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222조 1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무금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교무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교회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교무금이 어떻게 쓰이나요?

우리 공동체에서 교무금은 거의 100%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 지출	신부님 (생활비, 사제관 렌트, 차 보험료, 건강 보험료, 유틸리티) 각 종 일회용품, 주보 인쇄, 홈페이지 유지,
비 정기 지출	각 종 공동체 행사비용 (아버이 날, 야유회, 캠프 지출 등)
특별 지출	성당 사용료, Multi-Cultural Center 기부 등

* 교무금은 단 \$1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Q) 저도 교무금을 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교무금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Q) 저는 봉헌금을 매주 내고 있습니다. 굳이 교무금을 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교무금은 매 달마다 고정적이고 변동 폭이 적은, 그래서 공동체 운영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하기에 가장 믿을 만한 최소 운영 자금입니다. 봉헌금만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교무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원칙은 수입의 30분의 1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중 하루 생활비를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다만, 성경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마태 12,41-44, 루카 21,1-4)을 통해 액수보다 그 마음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운 만큼 채운다고, 교우들께서 봉헌하시고 내려놓으시는 만큼 주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지요. 어찌됐든,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성의입니다.

Q) 밀려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면 어떻게요? 냉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밀린 교무금은 신부님께 허락을 받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교무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비밀인가요?

사목자이신 신부님, 그리고 성당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무장(우리 공동체에서는 회계담당 사목위원) 외에는 그 누구도 누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Q) 교무금을 책정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황성필 세례자요한, 이창환 레오 회계담당 형제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